

■ '광주 어머니 산' 무등산 등산로 대해부

# 알려지지 않은 11개 새로운 길 찾았다

무등산은 대도시 산답게 거미망 처럼 길이 많다.

가장 등산객이 많이 몰리는 기점은 광주시내에서 대중교통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증심사와 원효사로 다른 지역 등산객 역시 대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산행을 하고 있다. 화순 쪽 코스들은 시내 쪽에 비해 훨씬 호젓한 산행을 즐길 수 있다.

증심사는 무등산의 여러 기점 중 광주시내 다방면으로 연결되는 노선버스가 많기 때문에 등산객이 가장 많이 찾는 기점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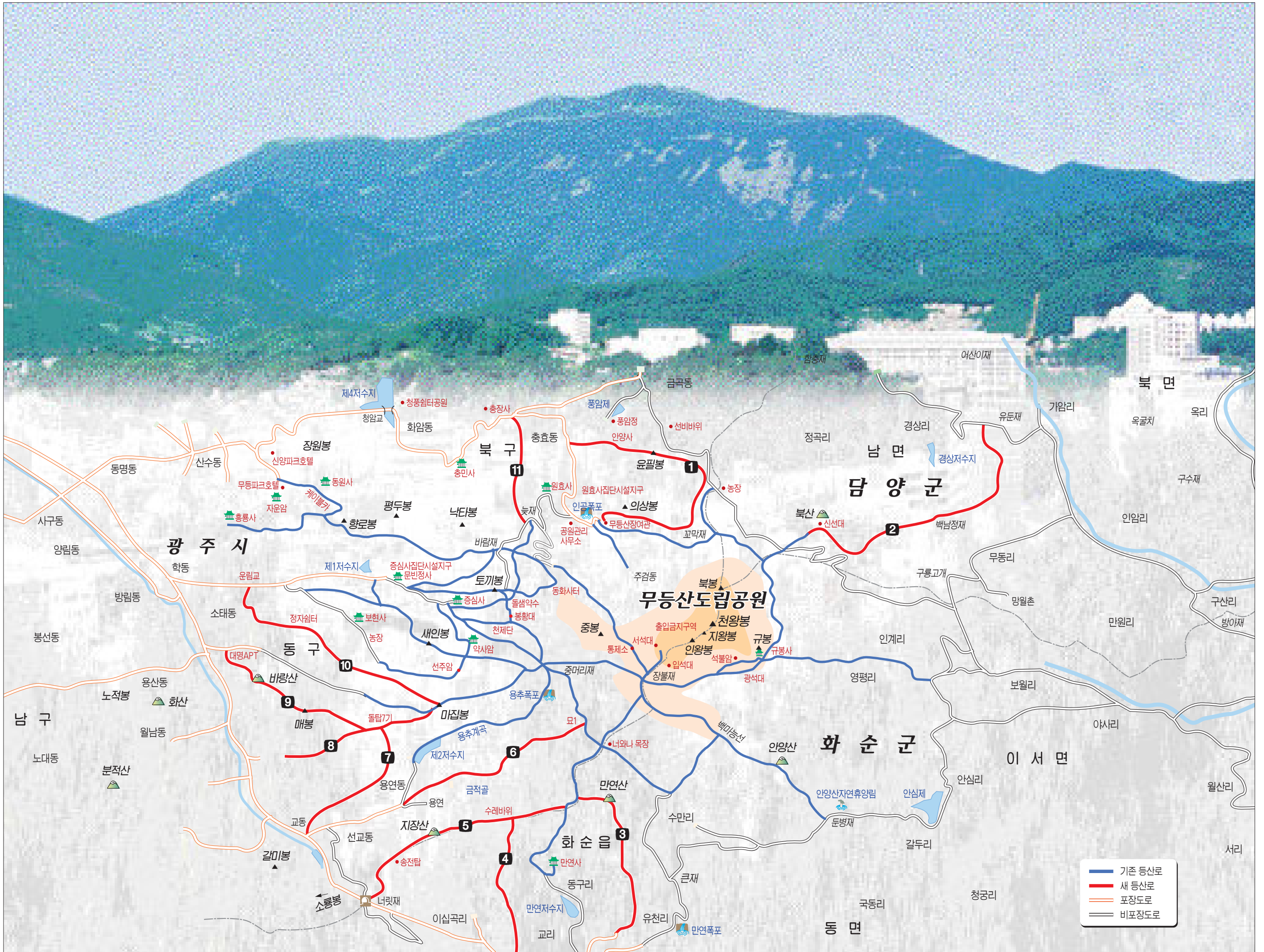
증심사 지구에는 워낙 산길이 많아 개개인의 취향이나 능력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대개 원점 회귀식으로 코스를 잡는다. 대표적이면서도 가장 인기 있는 코스는 버스종점 위 증심교에서 왼쪽 길을 따라다 오른쪽 아치형 철다리를 건너 능선을 따라 토끼등을 경유해 허릿길을 타고 봉황대약수-중머리재를 거쳐 장불재에 오르는 길이다.

장불재는 해발 900m 고원능선으로 여름에는 초원으로, 가을에는 억새로, 겨울에는 설하나 빙하로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.

장불재 남쪽 KBS 중계소를 지나 남동쪽으로 뻗은 능선은 가을철 억새가 활짝 필 때면 광야를 달리는 준마의 허리를 보는 듯 해 백마능선이라 불린다. 5월이면 철쭉이 화려하게 수놓는다.

이외에 잘알려진 등산로도 많지만 산악인 백계남(62)씨가 권하는 새로운 등산길로 산행에 나서보는 것도 무등산의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.

/최재호기자 lion@kwangju.co.kr



## 무등산 사나이

### 백계남씨가 분석한

### 'New Route 11'

- 1** 무등산장~의상봉(20분)~인양사(1시간)~버스정류장(25분). 일명 '아베코 코스'로 불릴 만큼 경사가 없어 가족등반이나 연인끼리 가벼운 산행에 적합하다.
- 2** 무등산 북봉·목초지~북산(30분)백남정재(1시간)~유둔재(1시간 40분). 전문등반코스 호남정맥구간이다.
- 3** 중머리재~너와나 목장(40분)~만연산(1시간 45분)~유천리(50분). 너와나 목장에는 염소와 토종닭등이 있어 먹거리가 풍부하다. 유천리의 고즈넉한 시골풍경을 만끽할 수 있어 봄철 산행에 적합하다.
- 4** 중머리재~너와나목장(40분)~만연산분기점(30분)~수레바위산(35분)~화순상수도본부및 향교(1시간 30분). 수레바위산~상수도본부 도착 직전에 소나무 숲이 일품이다.
- 5** 중머리재~너와나목장(40분)~만연산분기점(30분)~수레바위산(35분)~송전탑(50분)~너릿재(20분). 화순쪽으로 귀가할 때는 화순쪽 휴게실로 하산해야 하고, 광주쪽으로 귀가할 때는 광주쪽 휴게실로 하산해야 한다. 전문산악인 등반코스.
- 6** 중머리재~너와나목장펜스 직전 묘기(35분)~525봉~용연버스정류장(1시간 50분). 용연마을 쪽 농성과 봄철 치나무, 죽순등을 볼 수 있다.
- 7** 중머리재~마집봉삼거리(40분)~집개봉 돌탑 7기(35분)~교동(버스정류장 1시간 30분)
- 8** 중머리재초소~집개봉(1시간 15분)~마집봉 삼거리(15분)~주남마을(45분).
- 9** 중머리재~집개봉 (1시간 15분)~매봉(50분)~비랑산(30분)~대명아파트(소태역 35분). 오르내림이 심해 초보자도 산행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.
- 10** 중머리재~마집봉 삼거리(40분)~정자쉼터(1시간)~운림중 입구(운림다리 45분). 가족산책코스로 정자에서 산들거리는 바람결에 맘을 풀리며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울 수 있는 가족등반에 최적.
- 11** 늦재~총장사(1시간). 산책코스라 가벼운 등반에 좋다. 늦재가 아닌 바람재에서 등반을 시작해도 좋다.

## 14년 경력 1대간 9정맥 답사 10년간 무등산 등산로 찾아

백계남씨는=14년 등반경력의 산악인 백계남(62)씨는 1대간 9정맥을 답사했으며 국내의 산에 거의 자신의 발자취를 남길 정도로 산을 사랑하는 산 사나이이다. 어느덧 환갑을 넘긴 나이이지만 일주일에 3~4일 산에 오를 정도로 산에 대한 애정과 건강을 과시한다.

무등산의 새로운 등산로는 10여년전부터 하나씩 찾아 표시기를 달아놓았다.

